

국어를 4등급에서 1등급으로... 그리고 그 1등급을 안정화 시킨 후 백 99로 가게 된 방법

1.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안녕하세요 아무것도입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누군가는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어 이번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보면 'N등급에서 1등급을 맞게된 이야기'의 템플릿을 가장한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까보면 자기 강의, 책 홍보죠. 그분들도 생업이 달린 문제고 향상심이 있으실테니 그런 홍보같지 않은 홍보를 하시는 것이겠죠.

하지만

글이 조금 묻힌다싶으면 스욱 사라지고...
조금 올리다가 말거나 빌드업만 쌓고...

제가 16년부터 봐왔는데 홍보용 글 올리시다가 반응없으면 사라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그래도 제가 여기서 이런저런 글에 댓글로 국어 관련 질문에 상담해드리거나 오르비 플레이에서 노는거 보시면 오르비가 제게 어떤 곳인지는 잘 아실 듯 합니다. (그립구나 콧콕이여...)

아무튼

이번 글에서는 그저 진솔하게 진심을 담아. 제가 했던 방법만 전달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강의나 책이 아닌 일반적인 것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시는 학습 편의성을 위해 최근 기출들에 적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능을 조진후...

먼저 저는 국어 베이스가 있긴했으나 시험을 보면 4등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름 1타라는 분들 강의도 들어보았구요. 하지만 지문을 읽을 때 주어진 것을 일관적으로 읽는다고 보단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읽고 문제풀답시고 지문-문제를 왔다갔다하다 시간을 갈아마시는 느낌이었어요.

따라서 저는 뭔가 변수가 아닌 상수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엔 구조독해관련 강의를 급부상하는 단계였기에 저는 해당 강좌를 수강해봤습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평가원 비문학 기출 전개년을 배운 내용대로 스스로 분석하며 독해의 일관화를 꾀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계속 의문이었습니다. 이 지문분석을 한다고 오르나? 사후적인 것은 아닌가?

따라서 저는 문제 선지 분석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지문과 문제의 유기성을 집중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왜 이 부분에서 선지 출제를 했을까? 선지의 근거를 다 뜯어볼까?
이게 지문의 큰 줄기에서 나온 것 일까? 아니면 작은 줄기에서 나온걸까?
큰 줄기라면 왜 여기서 낸걸까? 작은 줄기라면 왜 여기서 낸걸까?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하지? 다 기억해야하나?
기억이 안난다면 어떻게 돌아가지? 표시를 해볼까?
그러면 표시도 4개 안쪽으로 고정해서 일관적으로 해볼까?

이때 접속사나 보조사, 어미 등등 형식적인 것들도 힌트가 된다는 것을 알아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그해 6모에서 바로 2로 오르더군요.

여기서 “아니 그건 제대로 국어 공부 안하다가 했으니 오른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하실수 있으실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문학**입니다.

사실 제 성적 상승의 비결은 이 문학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판단 근거의 간소화를 통한 시간 단축과 정답률 상승이 핵심입니다.

왜 문학에서의 **단축**이 중요한지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학은 시간의 단축이 가능하지만 비문학은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으로 비문학은 시간이 무제한적으로 제공된다면 정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하지만 문학은 그렇지 않죠. 차이는 나겠지만 비문학보다는 덜합니다.

이 두가지를 종합한다면 이 결론이 나옵니다.

문학에서 시간을 줄여내서 비문학에 투자하자.

따라서 문학에서 애매한 지점은 판단을 유보하고 확실한 부분에서 갖는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애매한 선지엔 세모치고 다른거 먼저보자~ 이렇게 **아니라** 선지 내 모순, 지문과 선지의 연결, 선지의 방향성 이런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수능장의 사고상황을 가정하고 그 사고 상황을 다양화시켜서 연습을 했습니다. 지문→문제, 문제→지문 이 두가지 방향으로 갔구요.

지금은 수능4에서 수능1이 되었을 때 일년간 한 것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당시엔 문학은 무조건 선지부터 보고 지문으로 갔습니다.

최대한 선지에서 요구한 바를 먼저 파악한 후 지문으로 가서 사실관계만 빠르게 훑어내고 선지의 요구사항만 판단해냈습니다.

이때 풀이순서는 그저 순서대로 가되

ㄱㄴㄷㄹ 나 [A], [B]같은 구간을 준 문제들은 보고 지문을 위에서 아래로 읽어다가 바로 털어내기, 표현법이나 소설의 서술방식 같은 유형은 뒤로 빼기
이정도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문제풀이의 순서는 그저 지문의 중복독해를 줄이겠다는 일념하에 시험지 유형마다 다르게 해두고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이 판단 방식과 풀이순서는 조만간에 정리해서 기출 분석 칼럼에 연재해보겠습니다.

언젠간요.

기본적인 방식대로 지문을 먼저 읽고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나가도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문을 다 읽고, 문제로 가고, 다시 그 문제에서 언급하는 부분으로 돌아가고 다음 문제를 풀며 다시 읽고....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지문 첫 독해때 엄청난 걸 하지는 않으니까요.

지문을 안읽고 선지를 긁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문을 다 읽지만 그 순서를 조금 달리했을뿐입니다.

그 예시로 25년도 수능의 현대시를 잠깐 보고가겠습니다. 모든 시험지를 보고싶으나 그건 다음 칼럼에서 시험지 하나를 손필기형식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먼저 지문을 스캔한 후 문제 선지로 갑니다.(아는거나 연계면 개꿀이고 아니면 음 모르는거네 정도로) 22번의 경우 (가)(나)(다) 공통된 표현법이니 가나다를 다 보고 나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 23번 (가) 단독 문제부터 봅니다. 물론 이거 연계였지만 모른다 가정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선지가 순서대로 있구요 이러한 구성은 지문의 위에서 아래로 가는 순서대로 선지를 배치합니다. 홀수, 짝수 둘 다 동일한 선지 구성입니다.

지문을 보고 필요한 독해만 한 후 여기로와서 바로바로 긁는 방식으로 가도 됩니다만 저는 문제부터 바로 봤습니다. 좀 더 집중할 포인트를 파악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23.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에 '배'를 밀던 '손'이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이별의 정서적 긴장감을 드러낸다.
- ② '뵈지도 않는 길'은 '사랑'이 '떠나'는 길이라는 점에서, 이별의 막막한 상황을 공간의 형상으로 드러낸다.
- ③ '슬픔'을 '밀어내는 것'을 '배'를 밀듯 '한껏 세계 밀어'낸다고 한 것은 이별의 아픔을 떨쳐 내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④ '배가 나가'며 생긴 '흉터'가 '잠시 머물다 가라앉'는다는 것은 이별의 슬픔이 잦아든 상태에 있음을 드러낸다.
- ⑤ '밀려들어' 온 '배'는 '아무 소리 없이' 다시 돌아온 배라는 점에서, 대상과의 재회가 예상대로 이루어짐을 드러낸다.

이제 제가 사용하는 방식의 실제 순서를 따라가봅시다.

23.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에 '배'를 밀던 '손'이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이별의 정서적 긴장감을 드러낸다. **아슬아슬히 떨어지는게 이별의 긴장감을 나타내나? 이별부터 파악 ㄱㄱ**

(가)

배를 민다

배를 밀어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

회변덕이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넣고는

배를 밀었구나 그래서 뭐?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의 한 허공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주고는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 손, 순간 환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배가 멀어졌고 손이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네 그런데 이게 이별임? 1번 판단중인데 아직 모르겠음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되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사랑이 떠난데 떠난다는건 멀어진거지.

방금 내가 밀어내서 거리감이 멀어진건 배였고

거리감이라는 유사성으로 사랑을 배에 빗댄건가

이별한건가 → 일단 1번 컷 이제 다시 2번으로

- ② '되지도 않는 길'은 '사랑'이 '떠나'는 길이라는 점에서,/ 이별의 막막한 상황을 공간의 형상으로 드러낸다. **아까 읽은 바에 의하면 사랑이 떠나가는 상황을 배가 떠나가는 것으로 빗대어 표현했지. → 2번도 컷**

- ③ '슬픔'을 '밀어내는 것'을 '배'를 밀듯 '한껏 세계 밀어'낸다고 한 것은/ 이별의 아픔을 펼쳐 내리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아픔을 펼쳐내려면 이별한 후의 감정을 펼쳐내야겠지**

배를 한껏 세계 밀어내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지

아 이별로 인한 슬픔을 밀어낸거군 그걸 배를 밀어낸 것으로 형상화한거고 → 3번 컷

- ④ '배가 나가'며 생긴 '흉터'가 '잠시 머물다 가라앉'는다는 것은/ 이별의 슬픔이 잦아든 상태에 있음을 드러낸다. **흉터? 잦아든다?**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의 흉터

잠시 머물다 가라앉고

아 배가 지나간 후에 물살이 있다가 사라지는거 배가 슬픔에 해당했었으니 뭐 바로 4번 컷

- ⑤ '밀려들어' 온 '배'는 '아무 소리 없이' 다시 돌아온 배라는 점에서, 대상과의 재회가 예상대로 이루어짐을 드러낸다. **솔직히 5번이겠지 소거했으니 ㅋㅋ 그런데 아무소리없이 온게 예상대로라고 볼 수 있나?**

그런데 오,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아무 소리 없이 밀려들어오는 배여

그런데? 갑자기 소리없이 배가 왔데 뭐 아까 말한 슬픔이 다시 밀려왔나보네

ㅇㅋ 답 5번

- 장석남, 「배를 밀며」 -

너무 길어질듯하여 실제 사고의 예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실제 시험지의 운영법과 문제 판단과 지문독해를 최대한 경제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 과정 이후로 (가)를 읽고 풀며 방향성을 얻어냈으니 그걸 가슴에 담고 다른 문제에서 (가)를 언급할 때 꺼내서 바로바로 판단해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연습을 기출로 다져둔 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적을 올려냈고요.

결국 이러한 방식을 일관적으로 적용하고 선지 판단시 들어가는 품을 최소화하여 시간을 줄여냈습니다.

그 결과 시간 확보를 통해 비문학에 투자할 시간을 늘려내서 성적을 향상 시킨 것 같습니다. 물론 비문학도 따로 같이 공부를 해 나갔으니 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4에서 1으로의 여정은 단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중간의 시행착오와 저 스스로도 이게 맞나싶은 비효율적인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효율이 시험장에서의 효율성으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수험기간동안 그리고 가르치는 동안, 자신은 재능이 없어 공부해도 오르지 않는다고 하는 학생들을 차분히 관찰해보았습니다.

기출분석 초기에 지문이나 선지 분석을 왜 스스로 해야하나 시간 낭비 아니냐 강사가 해주는거 보고 커리 따르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 비효율적이어 보이는 지점을 넘지 못하면 자신 스스로의 사고 회로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어 공부를 해도 3~4등급이신 분들은 한번쯤 기출을 풀어보고 그 풀이를 하나하나 모든 방향으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그게 기출 분석이지 그저 풀고 채점하고 강의 팟캐하며 필기만 하는 것, 지문의 구조분석만하는것은 분석이 아닙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1을 어떻게 안정화 시켰는지에 대해 써보겠습니다.

아마 어떻게 안정화를 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